

**“내가 바라는 것”**  
**What I hope for**  
(빌립보서 Philippians 3:4-15)

**1 바울과 빌립보 교회 Paul and the Church of Philippians**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 장은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담겨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를 처음 방문하고 난 후 약 10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첫 번째 장소였을 정도로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 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한 그 일행의 전도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의해 환영 받지 못했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옮겨 전도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길지 않은 기간 동안의 만남이었지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음을 빌립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oday's scripture, Philippians Chapter 3, contains Paul's encouragement to the far-away congregation of the church in Philippi. This was an epistle that Paul sent to the Philippians around ten years after he had first visited them. Philippi had a special meaning to Paul as it was the first place in Europe where he officially delivered the gospel. But according to Acts Chapter 16, Paul and Silas' ministry was not welcomed by the Philippians, and soon after an imprisonment they parted from Philippi and moved to Thessalonica for further ministry. Although Paul didn't spend a long time with the Philippians, he had a special bonding with the Philippian Church, as evidenced in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 **빌립보서 4:15-16 Philippians 4:15-16**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다른 어떤 교회도 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만은 그를 지원해주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여러 번 그에게 도움을 주었음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만남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짧았지만, 그 만남의 깊이는 알지 않았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빌립보를 떠났지만, 그들이 나누어 주었던 사랑과 보살핌은 잊지 않고 있음을 바울은 편지에서 고백합니다.

When Paul left Macedonia, no other churches but the church of Philippians supported him financially. In these verses, Paul recollects that the Philippians offered him frequent material support even when he had gone to Thessalonica, having been kicked out from Philippi. We can see through his confession that Paul's physical time with the Philippians was rather short, but the depth of his relationship with them was not shallow. Paul is confessing in this letter that although he had left Philippi, he was not forgetting the love and care that they had shown him.

● **빌립보서 1:7-8 Philippians 1:7-8**

자신이 제 2 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그리고 이어지는 감옥에서의 생활 동안 자신을 기억하고 기도해주며, 변함없는 사랑과 재정적 지원을 해 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다른 관계성 안에 들어와 있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안다면, 오늘 본문의 행간에서 ‘사랑하고 그리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리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 권면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그저 그런’ 적당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원론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진정성이 담긴 간절한 호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Paul was writing this letter in a Roman prison to express his gratitude for the congregation of the Philippian Church who remembered him, prayed for him, and extended their unchanging love and material support during his second mission trip and the subsequent imprisonment. Understanding Paul’s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Philippians, we can read in today’s scripture his longing for these people that he loves and misses so much but can’t see anymore. Furthermore, we must remember that his message of encouragement through these verses is not simply sharing principles with people with whom he had a casual relationship, but rather a heartfelt appeal to those whom he sincerely loves and has affection for.

## 2 바울의 권면 Paul’s encouragement

### ● 빌립보서 3:17-18 Philippians 3:17-18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울 개인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본받고 눈여겨보라”는 의미입니다.

Paul says to the congregation of the Philippian church, “Join together in following my example... keep your eyes on those who live as we do.” He is not only talking about himself as an individual, but about those who are delivering with him the gospel of Christ and those who listen to the gospel, trying to live as Christians.

### ● 빌립보서 3:12-14 Philippians 3:12-14

바울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을 마주하게 됩니다. 12 절의 “이것을, 목표점에, 그것을” 13 절의 “그것을, 앞에 있는 것을” 14 절의 “목표점을” 등 서로 다른 표현들이 사용되었지만, 결국엔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운동경기를 하는 선수와 같이 정해놓은 ‘목표점’을 향해 최선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 이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목표는 정해 놓았는데 지금은 아직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것을 붙잡기 위해 쫓아가고 있습니다. 얻고 싶고, 거기에 다다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Not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Here we are encountering Paul’s confession of what he is heading towards and running to. In verse 12, ‘this,’ and ‘at my goal,’ and in verse 13, ‘it’ and ‘what is ahead,’ and in verse 14, ‘toward the goal,’ different words are used, but they all mean the same thing. Paul is telling us that he is running like an athlete with all his might, with an earnest heart, towards his goal. However, he has not taken hold of the prize yet. He has not arrived at his goal yet. That’s why he is continuously running to take hold of that prize. He wants it, he wants to arrive at that point, but has not yet achieved it. Nonetheless, he has no plan to give it up. He has no plan to surrender.

## 3 바울의 목표 Paul’s goal

그럼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얻고 싶어하는 것, “이것, 목표점, 그것, 앞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된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언급한 무엇인가를 받는 ‘지시 대명사’가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은 12 절 앞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n what is the thing that Paul so wants to obtain, the thing that he expressed as “it, the goal, what’s ahead”? Judging that an indicative pronoun was used, what he is referring to can be found in verse 12.

- 빌립보서 3:10-11 Philippians 3:10-11

“내가 바라는 것은”이라는 표현을 통해 바울은 그가 얻기 위해, 붙들기 위해 좇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 그분, 그분”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By “I want to know” Paul tells us what he is running after to attain and take hold of. There are words repeated over and over. They are ‘Christ, his, his, him.’ Paul is concentrating on ‘Jesus Christ.’ He wants to know Jesus Christ, he wants to know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participation in His sufferings’ and ‘becoming like Him in His death.’ Paul’s focus was only on Jesus Christ.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 그의 목표는 11 절 말씀에 기록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죽음을 본받으려는 것은 결국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 그 부활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도 “부활”에 이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마음이 드러난 표현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닐까 싶습니다. “by any means possible(ESV), if possible(RSV)” 영어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희망하고 기대하는 마음과 그것이 그대로 될지 말지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 바울의 솔직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간절히 갈급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부활”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What we must pay attention to here is that Paul’s ultimate interest, or ultimate goal was ‘the resurrection’ recorded in verse 11. The reason why Paul wants to know Christ, participate in His sufferings, and become like Him in His death is because above all he wants to attain to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through the Jesus Christ Who showed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His desire is expressed in ‘by any means possible (ESV),’ or ‘if possible (RSV).’ Honestly, Paul’s desire for his goal and his doubt if it will be realized co-exist. Despite his uncertainty, Paul confesses that he desires ‘the resurrection’ with as much urgency and desperation.

- 빌립보서 3:7-9 Philippians 3:7-9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그의 삶을 본받아 가려는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7 절, 8 절, 9 절의 세 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합니다. 예수가 보여준 “부활”이 그에게 상당한 충격과 도전을 주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확증해 준 부활 때문에 바울은 새로운 결단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이ро웠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 개역개정에서는 “오물”이라는 표현을 “배설물”로, 영어성경에서는 “garbage(NIV), rubbish(ESV)” 등으로 번역합니다. 이전에는 그토록 귀하고 값진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는 “오물, 배설물, garbage, rubbish”로 바뀌었다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These verses show Paul’s desire to know Jesus Christ, to participate in his death and resurrection, and to become like him. “Due to Christ, knowing Christ, gaining Christ, to be a person in Christ and have faith in Christ.” ‘Christ’ is frequently repeated throughout verses 7, 8, and 9. This shows us that Paul is continuously focusing his attention on ‘Jesus Christ.’ In these passages, we can sense how deeply Jesus’ resurrection

affected and challenged Paul. Paul confesses that he has made a new resolution because of Jesus Christ and his confirmed resurrection: “I consider everything a loss because of the surpassing worth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whose sake I have lost all things. I consider them garbage.” The word used in the Korean New Translation Bible for ‘garbage’ can be translated into ‘offal,’ or ‘excrement’ and in English Bibles as ‘garbage (NIV) and rubbish (ESV).’ It is a strong statement that declares things he once considered valuable and precious are now ‘offal, excrement, garbage, and rubbish.’

#### 4 바울, 원래의 모습은? Who was Paul?

그렇다면 바울의 원래 모습은 어떠했나요? 바울이 원래 중요하게 여기던 것은 무엇인가요? Then let us ask what kind of person was Paul? What kind of things did he value before?

- 빌립보서 3:4-6 Philippians 3:4-6

바울은 “우리”가 아니라 “나”라는 대명사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난지 8 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정통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개종이 아니라 출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chosen people)의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지파들 중에서 초대 왕 사울을 배출했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그 영토 안에 가지고 있었고, 남북 왕조 분열 후에도 다윗 왕조에 충성을 다했던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으로 한쪽 부모만 히브리인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피 속에 순수한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Paul uses the first person singular ‘I’ instead of ‘we’ to stress his own importance. He was an orthodox Jew with the right to be circumcised on the 8<sup>th</sup> day of his life. He was not granted rights by religious conversion, but by being one of the chosen people. He was of Benjamite lineage. Of the 12 tribes of Israel, the tribe of Benjamin produced the first Israelite king, Saul, and housed the tabernacle and ark; it is the tribe that stayed loyal to the Davidic line even after Israel split into the northern and southern kingdoms. Paul was a Hebrew born of two Hebrew parents, with pure Hebrew blood flowing through his veins, unlike those who could only claim Hebrew heritage from one side of the family.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특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후에도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지만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당시 최고의 랍비로 인정받던 “가말리엘” 문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라는 것은 당시 율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존경 받던 “바리새인”이라는 자부심이 담긴 표현입니다. 더구나 그는 머리만 큰 지식인으로 머물지 않고, 그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공동체를 핍박했던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조건으로 보나, 자신이 스스로 이루어낸 업적으로 보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단한 유대인이었습니다. 6 절의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얼마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감 있어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Not only was Paul born with innate privileges, he was also raised in a more privileged environment than others were. Despite being a diaspora Jew, he was sent from Tarsus to Jerusalem to study under Gamaliel, one of the most noted rabbis of his time. Paul alludes to his pride at being a Pharisee, respected by others, with a deep knowledge of the Torah and strict adherence to it when he says he has been ‘as to the law, a Pharisee.’ Furthermore, he was an intellect who did not just preach, but acted out his beliefs through his zealous persecution of Christians. Whether by his birthright or own accomplishments, Paul was a Jew worthy of respect. His use of the phrase, ‘as for righteousness based on the law, faultless’ shows us how proud and confident he was.

## 5 바울,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Paul, what happened to him?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4-6 절에서 보여주는 모습으로 살았던 그가, 도대체 왜 7 절 이하의 모습으로 변화된 걸까요? 6 절과 7 절 사이에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길래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Here we ask the most important question related to today's scripture. How did he who lived his life as portrayed in verses 4-6 become the man shown in verses 7 and beyond? What happened to him between verses 6 and 7 that would make him confess so differently?

- 사도행전 9:1-5 Acts 9:1-5

1 절과 2 절의 말씀은 빌립보서 3 장 4-6 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위협, 살기,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신념과 신앙에 확신을 갖고 있었는지,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 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3 절 이하의 말씀은 이랬던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체험을 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환한 빛과 함께 음성이 들립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4 절) 빛 속에 임한 이 음성, 부활하여 천국에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살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5 절)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그는 전혀 다른 삶의 차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 그 체험의 순간을 기준으로 바울은 Before 와 After 로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3 장 6 절과 7 절 사이에는 바로 사도행전 9 장의 이 사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Verses 1 and 2 of Acts are in line with Philippians 3:4-6. The expression, ‘murderous threats’ gives us insight into how deep his assertion of his faith and beliefs was, and how fanatical his persecution of Christians was. However, verse 3 and beyond describe the life-changing encounter he experienced. A light suddenly flashes around him and he hears a voice. It is the voice of our resurrected Lord. “Saul, Saul, why do you persecute me? (v. 4)” Upon hearing this voice in the light, the voice of Jesus Christ who was resurrected and ascended into heaven marks a watershed moment in his life, being known no longer as Saul, but Paul. As he calls out, “Who are you, Lord?” and says the Lord’s name, he begins a new life. The moment he meets our resurrected Jesus Christ is the turning point of his life; the moment in which his life is clearly divided into before and after. This episode in Acts 9 is what occurred between verses 6 and 7 in Philippians.

사도행전 9 장의 이 체험이 바울의 가치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 자신이 노력해서 성취한 것들이 과거에는 스스로를 의지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이제까지 자신에게 ‘이로운’ 것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해로운’ 것으로, 심지어는 ‘오물’로, ‘배설물’로 보인다고 고백합니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해서 ‘덜 좋은 것’을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기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The encounter in Acts 9 brings about a fundamental change in Paul’s value system. Before, his birthright and his own accomplishments were a source of immense pride and a driving force. However, after meeting Jesus Christ on the road to Damascus, after realizing that nothing is more precious than knowing Jesus Christ, the things he once thought were gains he considers a loss. He goes as far as to call them garbage and rubbish. This does not mean that he abandons these less good things because he found something better. It means

that he actually finds them harmful, and therefore worth discarding. It is because he understood that they are impediments to knowing and understanding Jesus.

## 6 내가 바라는 것 What I hope for

여기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 바울의 변화를 비교하면서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를 살리려 하고, 누구를 죽이려 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 ‘나를 살리고, 남을 죽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 장 1 절과 2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그것이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으로 자신이 잘 사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살아가는 길이 결국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멋지게 품 나게 살기 위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핍박했고, 심지어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거기에 종교적인 확신과 신념이 더해지면서 그는 쉬지 않고 앞으로 달렸습니다.

By comparing Paul’s life before and after he met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we notice a critical difference in him. The difference is in the way he answers the question, “Who would you save, and who would you kill?” Before meeting Jesus Christ, Paul was the type ‘to save himself and kill others.’ We can see in Acts 9 verses 1 and 2, that Paul was relentless in his efforts to arrest, persecute, and kill Christians. He firmly believed that this was the way for him to live as ‘a Hebrew of Hebrews,’ that in order for him to live his life the way he saw fit was to kill Christians. He tortured and even killed Christians for his own satisfaction, for others’ acknowledgement, and for the pursuit of a sophisticated life. He believed it was right and pleasing to God. His religious motives drove him to continue in this way of life.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빌립보서 3 장 10 절과 11 절에서 바울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마지막 단계인 “부활”에 이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죽음 없이 부활이 없음을 알게 되었기에,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최종목표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그는 고난 받고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고, 실제로 그렇게 그 이후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However, this thought had been changed after he met Jesus Christ in person. In Philippians 3:10-11, Paul confessed that ‘becoming like him in his death while sharing in his sufferings’ was his goal. He also confessed that joining Jesus’ suffering and death was ‘my desire’ because he had realized that he could reach ‘resurrection,’ or the last step after he went through all the sufferings and death. He realized that his resurrection did not exist without his sufferings and death, so he confessed that he was willing to go his way. His utmost goal was the resurrection. For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he was not afraid of being suffered and dead. Due to his suffering and death, other people will listen to the Gospel, and they are resurrected as new human beings. He decided not to become a person who kills others to survive, but to be a person who dies to save others. In fact, he lived his life as such after he had decided.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 이후에도 바울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최선, 열정과 헌신의 목표와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중심엔 “부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전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행함을 통한

의로움을 쌓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열심과 열정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알던 부활은 종말에 모든 성도가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자신을 직접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부활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살아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여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포함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찾아온 경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Before he met the resurrected Lord on the way to Damascus, he tried his best to live his life. He lived passionately with full of dedication. But the goal and reason for his diligence, passion, and dedication became completely different. In the center of the change were a new realization and hope about the 'resurrection'. He was the person who killed others to survive himself before. He firmly believed that he could be saved through accumulating righteousness actions in the Law. However, the diligence and passion has changed for others and other's benefits, not for himself. Paul's previous perception of the resurrection only meant that all the Christians would be resurrected from death and stood in the glory of God. However, after he met the resurrecting Jesus who came to meet him personally, he realized that the resurrection was not only salvation that would happen in the distant future, but also included obeying Jesus Christ who works and rules the world now, living through his power, and practicing his love in the present time. Through experiencing the Lord personally, he made certain that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continues to work now.

- 고린도 후서 4:10-11 2 Corinthian 4:10-11

바울은 기꺼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따라, 자신의 삶을 고난과 죽음에 내려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신하게 된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기에, 그는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기로 결단합니다. 여기서의 “고난, 죽음”은 결국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죽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위한 “자기 희생, 자기 포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He confessed that he would be willing to sacrifice himself. Then others can enjoy 'life.' Following Jesus Christ's suffering and death, Paul put his life on suffering and death based on his firm belief about the 'resurrection' through Jesus Christ. He made certain that eternal life would follow in heaven after life on earth is over, so he embraced the hope of resurrection and willingly decided to join Jesus Christ's suffering and death. 'Suffering' and 'death' here could eventually mean 'martyrdom' to spread the gospel of the cross. It could also mean 'death from sins.' Or, it could mean 'self-sacrifice and self-surrender' for the gospel of the cross.

우리 가운데 복음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 순교를 맞게 될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실현되어야 할 죽음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평안과 성숙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 죽음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또 다른 죽음입니다. 그것은 때로 육체의 죽음과 같은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부활 이전에 우리는 그 죽음의 단계를 지나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낮아지는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It is not likely that we face a physical death and martyrdom because of the gospel, but 'the death of sins' is something that must be realized to all of us. We must also carry out another death indicating 'self-sacrifice and self-surrender' by humbling ourselves and thinking highly of others than ourselves to promote the peace and maturity of our community. Sometimes, it requires spiritual suffering as well as the physical death.

However, we need to go through the steps of the death before the resurrection. We should remember that saving others and community is a way to join the suffering and death of Jesus Christ while we endure the pain from killing and lowering ourselves.

## 7 나가는 말 Concluding Remarks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그를 만난 바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바울의 겉모습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의 출생, 그의 학력, 그의 지식, 그의 경험, 그의 실력, 심지어 그의 외모도 바뀌지 않았습니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의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과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 절과 11 절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We live the Easter now. Paul was transformed to a completely different person from the one in the past after Jesus Christ came to meet him. His outer appearance didn't change even if he met Jesus. His birth, his education background, his knowledge, his experience, and his ability, and even appearance had not changed at all. All remained the same for Paul as before. However, his values to life and his direction of life had changed entirely. His inner side had completely changed. The person who meets the resurrected Lord personally has no choice but to transform. Like Paul who lived a completely different life through meeting the resurrected Lord, I bless you and me to have such an experience and transformation in the name of the Lord. I hope that what Paul desired in his confession in 2 Corinthian 10 and 11 becomes what all of us desire.

<메시지 신약>의 번역으로 빌립보서 3:7-11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I wrap up my sermon by reading Philippiian 3:7-11 in the Message Bible.

“The very credentials these people are waving around as something special, I'm tearing up and throwing out with the trash—along with everything else I used to take credit for. And why? Because of Christ. Yes, all the things I once thought were so important are gone from my life. Compared to the high privilege of knowing Christ Jesus as my Master, firsthand, everything I once thought I had going for me is insignificant—dog dung. I've dumped it all in the trash so that I could embrace Christ and be embraced by him. I didn't want some petty, inferior brand of righteousness that comes from keeping a list of rules when I could get the robust kind that comes from trusting Christ—God's righteousness. I gave up all that inferior stuff so I could know Christ personally, experience his resurrection power, be a partner in his suffering, and go all the way with him to death itself. If there was any way to get in on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I wanted to do it.”